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7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追慕 (48x48-Acrylic on Canvas)

• 오래 전 어느 여름날 스님을 뵈러 불
일암에 올랐다가 날이 더워 우물터
에 갔더니 세숫대야 가장자리에 못
으로 찍어 쓴 '67.12.3'이란 숫자를
보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쓰셨
으리라 헤아려보니 그 세월이 50여
년... 하찮은 밑짚모자 하나도 그렇
게 쓰신것을 알고 붓을 들었습니다.

고현 •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7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처음 마음으로	13	불자가 가져야 할 얼굴
따뜻한 이야기	17	빵 두 봉지의 사랑
꽃은 흠에서 핀다	18	연향기
모단 에ッセ이	20	나의 무궁화 반도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23	기존의 말을 일단 멈춤!
아름다운 마무리	26	7월 결연 대상자 - 박승훈(가명)
황혼, 그 기막힌 순간을 지나며	28	나의 흠연 시말서
古典을 읽다	33	장 지오노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향기 나는 우체통	38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시심정심	40	도시의 빛방울
맑고 향기롭게 소식	41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7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69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글 • 법 정(法 頂)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지었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이엉이 덮이고
방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 움막은 자신을 가리킴.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모기나 쇠파리도 없고
소들은 눈에 우거진 풀을 뜯어먹으며
비가 내려도 견뎌낼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부처님)은 대답하셨다.
“나는 생내지 않고
마음의 끈질긴 미혹迷惑도 벗어버렸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쉬리라
내 움막은 드러나고
탐욕의 불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뗏목은 이미 잘 만들어졌다
거센 물결에도 끄떡없이 건너
이미 저쪽 기슭[技岸]에 이르렀으니
이제 더는 뗏목이 소용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내 아내는
온순하고 음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도
항상 내 마음에 흡족합니다

그녀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말도 듣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내 마음은
내게 순종하고 해탈해 있다
오랜 수행으로 잘 다스려졌다
내게는 그 어떤 나쁜 것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나쁜 점이 있다는 평판
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나는 그 누구의 고용인도 아니다
스스로 얻은 것에 의해
온 세상을 거니노라
남에게 고용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아직 길들지 않은 송아지도 있고
젖을 먹는 어린 소도 있습니다
새끼 뱀 어미 소도 있고
암내 낸 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아직 길들지 않은 어린 소도 없고
 젖을 먹는 송아지도 없다
 새끼 뱀 어미 소도 없으며
 암내 낸 암소도 없다
 그리고 암소의 짝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소 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소를 매놓은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자’ 풀로 엮은 새 밧줄은 잘 꺾여 있으니
 송아지도 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스승은 대답하셨다.
 “황소처럼 고삐를 끌고
 코끼리처럼 냄새 나는 덩굴을 짓밟았으니
 나는 다시는 더 모태(母胎)에 들지 않을 것
 이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

이때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에서 비를 뿌리더니
 골짜기와 언덕에 물이 넘쳤다
 신께서 비를 뿌리는 것을 보고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거룩한 스승을 만나
 얻은 바가 참으로 큼니다
 눈이 있는 이여
 우리는 당신께 귀의(歸依)하오니
 스승이 되어주소서
 위대한 성자시여.
 *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가리켜 ‘눈이 있는
 이’ 또는 ‘눈뜬 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아내도 저도 순종하면서
 행복하신 분 곁에서 청정한 행을 닦겠나
 이다
 그렇게 되면
 생사의 윤회가 없는 피안에 이르러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악마 파피만이 말했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
 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건덕지도 없으리라.”

스승은 대답하셨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
 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한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은 마침내 근심이
 된다
 집착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근심할 것도 없다.”

- 강론 -
**소유 지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적인 삶**

소 치는 목자들은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인도의 장마철
 [雨期] 4개월은 높은 평원에서 지
 내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소가 뜰

어먹을 풀을 찾아 유목한다. 여기
 등장하는 다니야는 장마철에 대
 비해 준비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마히
 강변’의 마히는 고유명사가 아니
 고 ‘큰 강’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나는 이 ‘다니야’ 장을 읽으면 문
 득 오페라의 듀엣을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한 목
 청으로는 세속의 기쁨을 노래하고,
 다른 한 목청으로는 출세간의 흥가
 분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한참
 을 주거나 받거나 자기네 입장이
 이야기하다가, 마침내는 근심 걱정이
 사라진 해탈의 길에 함께 이른다.
 경전의 형식치고는 아주 독특하다.
 소유 지향적인 삶과 존재 지향
 적인 삶은 우리들 일상에 두루 깔
 려 있다. 거기에는 그 나름의 살아
 가는 기쁨이 있다. 그러나 어떤 상
 황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삶이 우리
 가 기대어 살아갈 만한 삶이요 가

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삶인가가 뚜렷이 드러난다. 똑같은 조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삶의 기쁨으로 반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근심 걱정의 원인으로 본다.

며칠 전 한 어머니가 긴 편지를 보내왔다. 자식 때문에 몹시 상심한 끝에 상면한 적도 없는 나에게 하소연을 해왔다.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랬겠는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올바르게 기르지 못하고 못난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 하늘을 쳐다 보기도 부끄럽고 스님을 대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연은, 집안의 기둥인 큰아들이 올바른 길을 잃고 도박에 미쳐 있어,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뿐, 돌이킬 줄 모르니 가슴을 태우다 태우다 이제는 지쳐 가사상태에 있다고 했다. 아들은 지금 대학 4학년에 재학중으로 군

에도 다녀온 터인데, 대학가에 전염병처럼 도는 도박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친정 조카가 있는데, 그도 사업을 하다 도박에 손대어 자기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한탄의 말을 늘어놓았다.

“자식이 무엇인지, 나와 자식이 무슨 원수로 만났는지, 내 전생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이 무서운 쇠사슬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될지 조언을 부탁했다.

요즘 대학가 일부 학생 사이에 도박이 성행한다는 소식은 풍문으로 전해 들은 바 있지만, 이 어머니가 이렇게 괴로워할 만큼 심각한 줄은 미처 몰랐다.

우리 속담에 “무자식 상팔자”란 말도 있지만, 자식을 두면 여러 가

지로 좋은 일도 많은 반면에 근심 걱정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같은 처지에서는 자세한 내막이야 알 수 없지만, 부모들이 애를 태우면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야말로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세상에 공것은 없는 셈이다. 무엇이나 그 보상을 치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바세계, 즉 겨우 참고 견딜 만한 세상이란 의미도 이런 데 있지 않은가 싶다.

장마가 지기 전에 나무 벼늘(날가리)에 비옷을 덮어야겠다고 베프기만 하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안절부절 마음이 몹시 불안하다. 그런가 하면, 비가 내릴 것 같아서 미리 서둘러 비של거지를 끝내자마자 세찬 빗줄기가 쏟아질 때의 그 안도감을 나는 여러 차례

겪어보았다.

그런 때면, 다니야의 가락처럼 “비를 뿌리려거든 비를 뿌리소서.”를 속으로 중얼거린다.

경전에는 가끔 악마가 등장하는데, 파피만을 한문으로는 파순波旬이라고 번역한다. 악마란 외부의 세계에서 와서 해코지를 하는 나쁜 무리이기보다는, 우리들 내면의 갈등을 상징한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흔히 갈등에 부딪히는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 한쪽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손쉽고 편리한데 무엇 하러 그런 모험을 하려 하느냐고 충동질한다.

“자녀가 있는 이는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사람들은 집착으로 기쁨을 삼는다. 그러니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건덕지도 없으리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다. 세

상의 즐거움이란 분명히 이런 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상황을 다른 입장에서라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근심 걱정은 집착에 그 원인이 있다. 어떤 성질의 집착이든지 집착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말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일을 하되 그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자녀 없이 사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는 으레 자녀가 따르게 마련이다.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집안에 화기(和氣)가 돌고, 부모 자식 간의 따뜻한 정과 유대도 생긴다. 그 대신 자녀가 없는 집은 단출하고 냉랭하고 삭막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자식에게 너무 기대를 두고 집착을 하면 언젠가 기대를 건 만큼 상처를 입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

체로 보지 않고, 애지중지하며 마치 애완동물이나 소유물처럼 착각할 때, 그 상처는 더욱 크다.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어떤 인연에 따라 만나서 함께 살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도리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다쳐져있다면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속상해 할 것도 없다.

집착할 데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건덕지도 없겠지만, 다른 한편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것도 없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 인생의 미묘한 양면성 아니겠는가.

최근 강옥구 씨의 에세이집 《들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를 기분 좋게 읽었다. 지난 가을은 이 일저 일에 밀려 분주히 보냈는데, 이런 글을 대하자 밖에서 문혀온 피로가 말끔히 가셨다.

한 목사님에게 써보낸 글들로

엮은 책이지만, 개인적인 서한집의 성격을 벗어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다.

“누구나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 여인과(또는 이 남자와) 일생을 함께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한다. 결혼생활에서 그 외의 것은 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의 부부관계는 순수한 나와 순수한 너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닌,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이미지와 너에 대해 내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꾸며지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생기는 차질만큼 좌절과 갈등과 실망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수단으로 우리는 결혼생활

에서 대화가 아닌 물질적인 보상이나 자극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만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 등은 그들이 지나는 물질적인 속성, 즉 재보고 달아보고 비교하는 그런 속성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항상 실망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비극은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서로 속뜻을 열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화가 끊긴 데 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란 일상적인 말의 주고받음이 나 길바닥에서 얻어들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의 일을 진지하게 살피고 생각한 바를 나눔으로써 영혼을 울려주고 삶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적인 지적(知的) 관심사가 바탕이 되

불자가 가져야 할 얼굴

글·덕 일(德日)

어야 하고, 탐구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부 사이건 친구 사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저 그렇고 그런 시들한 관계로 빛이 바래고 만다. 살아 있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순간순간 자신이 지닌 빛깔과 향기와 형태를 마음껏 드러내기 때문이다.

18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좋은 대화의 동반자로서 자신을 이끌어준 남편에게 감사하면서, 그는 이런 말도 하고 있다.

“사랑은 질투가 아니고 집착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쾌락이 아니라 한 크리슈나무르티의 말을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부부관계 안에서 욕망과 질투와 쾌락과 소유욕을 사랑과 혼동하고 있으니깐요.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내가 화를 내거나 질투할 때 그 화와 질투가 곧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없애지 않고는 화나 질투가

사라지지 않으며, ‘내’가 떠나버린 빈자리에만 참으로 자비와 사랑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사이란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있음[存在]이 함께 맺어지고 확인된다. 탐구하는 노력으로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날씨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에는 산이나 바다, 강가를 거닐면서 사색이나 명상에 잠겨보기도 하고, 계절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로서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중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자비의 연등을 세상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여 주신 연등 불자금의 일부를 성북구 지역주민 중 소외되고 불우하며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시는 독거 노인분들에게 20kg 분량의 자비의 쌀 100포대를 전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회향하였습니다.

‘자비의 쌀’을 전달하기 위하여 성북구청을 방문하였는데 구청장님과 담당자들이 엄청 반기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말하길 국내정기가 좋지 않고 세계적으로 불황이어서 그런지 갈수록 기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는데 길상사 불자님들의 정성을 모아 쌀 100포대라는 양의 공양미를 쾌척하며 기부문화를 실천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고마워 하셨습니다.

저 또한 불기 256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음악회’를 여법하게 원만회향하게 되었음을 신도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양현석씨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저와 재주분들께서 재 상담을 마친 후 길상사에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를 맡겨주었습니다.

저는 양현석 거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좀 특이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음성이 부드럽고 얼굴은 환하게 밝고 미소가 떠나지 않으며 생기가 돌았습니다.

물론 불가(佛家)에서는 특히 성공한 사람 또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등으로 분별을 가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분상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장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대화를 나누어 보니 불심(佛心)도 깊고 부처님의 가피를 말하고 논할 정도로 대단한 불자였습니다. 원래 양현석 거

사의 부친께서는 조계사 옆 근처 조그만 가게에서 전파상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조계사의 연등 작업을 도맡다시피 하셔서 연등설치 불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큰 불사(佛事)공덕을 지으셨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분들이 부친의 공덕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의 죽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중에 달을 비유로 들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 재가자의 집에 가거든 마땅히 달과 같은 얼굴을 하고 가라. 마치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하게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가라. 또한 훌륭한 장정이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고 높은 산을 오를 때처럼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진중하게 하라.

마하카사파(가섭)는 달처럼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처음 출가한 신참자처럼 수줍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얼굴로 재가자를 찾아간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손으로 허공을 한번 움켜잡았다 놓은 뒤 계속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떠한가? 지금 내 손안에 허공이 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재가로 가서 음식을 얻을 때는 침착하고 구속됨이 없이 다만 ‘공덕을 원하는 자는 공덕을 베풀기를……’하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가 얻게 되면 기쁘게 생각할 것이며, 남이 얻어도 기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비구의 자격이 있다 하리라.”
- 잡야함 41권 1136경 (월유경 月喻經)

어떤 사람이 어떤 얼굴을 갖는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세월과 경

험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 인격의 투영이기도 합니다. 얼굴에도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얼굴의 눈, 코, 입, 혀, 귀와 추정하여 오장육부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얼”은 영혼을 말하며 “굴”은 통로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얼굴은 영혼의 통로이니 얼굴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불자의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경전에 의하면 “달처럼 수줍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달과 같은 얼굴”은 수행자나 또는 재가의 불자들이 언제나 가져야 할 얼굴인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란 거것으로 그렇게 꾸민다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형편이 없으면서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광대의 가면과 같은 것이니 불자의 얼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야하고, 토끼는 귀를 잡아야하며, 사람은 마음을 서로잡아야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됩니다.

마음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표정과 말투, 목소리, 자세, 행동 등이 합쳐져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일상의 행위조차도 내면수행으로 삼아 자비스러운 불자의 모습을 간직해야 합니다.

웃음을 전파하는 모원장님은 미·인·대·칭이탄 표현을 차용합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서로 인사를 잘하며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비방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수행으로 심상(心像)을 잘 가꾸어 많은 이들에게 보낸 미소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그 미소는 몇 배가 되어 다시 내게로 회향되어 돌아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일본 속담에도 “활기찬 목소리는 액운도 물리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사고와 낙관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면서 생각 생각마다 부처님을 여의지 않으면 만사가 형통될 것입니다.

오늘 법회는 불자가 가져야 할 얼굴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보시기 바랍니다.

- 불기2561년 음력 5월 초하루 법문

(2017년 5월 26일)

빵 두 봉지의 사랑



오랜 시간 힘들게 모은 돈으로 빵 가게를 개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진열장에 놓여 있는 빵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렀고, 손님이 많은 날은 입가에 미소가 떠날 줄 몰랐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열 살배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맛있게 만들어진 빵을 두 봉지 챙겨 학교 가는 딸아이에게 간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따끈한 빵을 진열대로 하나둘 옮겨놓다가 금방 딸이 놓고 간 준비물을 발견하곤 뒤를 쫓았습니다. 멀리서 딸을 본 그는 딸의 행동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딸아이가 편의점 주변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빵 두 봉지를 드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빵을 받은 할머니는 딸아이를 보고 익숙한 듯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딸아이는 그동안 매일 아침 아빠에게 간식으로 받은 빵 두 봉지를 폐지를 수거하는 할머니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멀리서 딸의 행동을 지켜본 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딸아이가 가져갈 두 봉지의 빵과 함께 할머니께 드릴 빵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 출처 : 따뜻한 하루

연 향기

글 • 김기철(도예가)

나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했기에 이토록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수시로 감격한다. 그렇다고 별안간 돈뭉치가 굴러 들어와 팔자에 없이 흥청거리는 행운이 닥친 것은 아니고, 또 뜻밖에 하루살이 목숨 같은 장관 자리에 발탁되어 여보란 듯이 한껏 거들먹거릴 기회가 주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울안 한쪽 연못에 심어 놓은 연(蓮) 향기를 복에 겹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연 향기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전생까지 들먹이나 할지 모르겠다. 나는 전생의 전생을 덧붙여서라도 이 호사를 자랑하고 싶은 심정이다. 한 줄기 자연의 향기는 내 삶의 청량제

가 되어 살맛을 되찾게 해준다.

울안 곳곳에 심어놓은 재래 화초와 야생화의 향기는 그 아름다운 자태 이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른 봄 매화향기를 선두로 조팝꽃, 으아리, 은방울꽃, 짙레, 후박꽃 등이 퇴장하기가 무섭게 한련, 분꽃, 심지어 호박꽃이 등장하고 그들과 더불어 균계일화 같은 백련이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다. (중략)

나는 연꽃에서만 향기를 내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연잎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맥 빠진 상태에서 코끝을 살살 간질이는 연 향기는 너무나 뜻밖이었다.

작업실 창문을 통해 밀려들어오는 그 황홀한 향기라니... 사람이 순식간에 우화등선하는 것도 별 특별한 일이 아닌 성 싶다. “아, 이 향기! 이 기막힌 향기!” 하고 혼자 감탄을 해대며 방정을 떨었다. 내 몸의 세포는 생기가 돌고 오그라들었던 가슴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그 때문인지 평소 게으름 떨던 여름과는 달리 흠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푸른 잎을 배경으로 한 칠월의 하늘이 눈부시게 파도처럼 출렁일 때 막 입을 여는 백련 꽃봉을 바라볼라치면 호흡을 멈추지 않을 수 없다. 연꽃은 바야흐로 한 잎 두 잎 피어나는 그 순간이 순결하기 그지없다. 이슬방울이 구르는 연잎 위로 쪽 뺨어 치솟은 저 고귀한 자태를 보라! 무중력 상태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천상의 존재가 잠시 내려와 된

가를 현시해주는 것 같은 찰나다.

연꽃잎 하나하나의 너무나 섬세해 나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재주가 없다. 그러나 잎의 끝부분은 냉혹하리만큼 날카롭다. 반면 연하디 연한 연뿔빛의 투명한 색조는 그 이상 곱고 여릴 수가 없다. 참으로 오묘하다. 하긴 오묘한 게 이것 뿐일까? 꽃잎 사이로 깊숙이 들여다보이는 속은 별천지다! 연밥이 잉태되는 산실, 마치 황금액체가 도가니에서 끓고 있는 것 같은 화려함이 그 중심에서 이글대고 그 둘레로는 고물고물 애기 손가락 같은 흰 술이 웅위하고 있다. 극락세계는 귀로만 들었지만 바로 이런 데가 아닐까 싶다. 신성하기 이를 데 없는 지성소(至聖所)라 해도 좋을 만하다. 아니면 속되게 왕과 왕후가 기거하는 침실쯤으로 격하시킨다 하더라도 이만큼 호화찬란할 수 있을까 싶다.

나의 무궁화 반도

글 • 노자영(1898-1940) 시인

옛날 조선의 국화는 무궁화다. 그리고 조선을 그의 날개 밑에 품고 있는 백두산에는 무궁화가 많이 핀다.

무궁화 그 이름조차 아름다운 이 꽃은 조선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명화라고 한다. 이 꽃은 반드시 백두산에만 피는 것이 아니요 조선 각지 어느 구석에든지 반드시 피는 것이다. 이 무궁화. 그는 조선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이만치 결코 화려한 꽃은 아니다. 청초한 맛은 있으나 진하고 그리고 가련한 꽃이다.

이 꽃에 둘러 있는 반도는 그 꽃의 상징과 같이 반드시 화려한 역사는 가지지 못하였다. 조선의 역사가 말하는 것과 같이 항상 분란과 전란이 있었고 따라서 외적의 침범도 많이 받았다. 무궁화 반도

는 그 꽃과 같이 항상 슬픔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가련한 역사의 줄기를 갖고 있었다.

나의 무궁화반도. 봄마다 피는 무궁화가 활개를 뻗치고 요염한 웃음을 웃지 못함과 같이 이 반도도 줄위에 앉은 새같이 항상 몸을 쭈그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더욱이 금년과 같이 수재까지 흑심한 해이라. 그러나 나는 이 반도의 한사람이요 또는 그 무궁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땅이 기름지고, 화평하고, 풍년 들고, 화려하고, 즐겁기를 바라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어떤 때에는 내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슬퍼하였고 또는 이 땅에 생겨난 것을 후회까지 하여 보았으나 지금은 도리어 이 땅에 생겨

나고 이곳의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한다. 생각하면 우리 반도같이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으며 조선 사람같이 순량한 사람이 어데 있는가?

동해바다 해를 안고 백두산 빛이거니 무궁화 그 해 빛에 붉게 타 아니 피리 아마도 이 강사는 그해같이 맑아라!

동해에 불긋 솟아오르는 아침 날은 그 찬연한 무한의 광망을 가지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조선 사람들에게 날마다 그 빛을 던져 주지 않는가? 그리고 동해의 맑은 물결은 그 고원高遠한 그림자를 이 땅 위에 물들이지 않는가?

조선 사람의 심경은 언제든지 조일朝日같이 명랑하고 조선朝鮮하다. 그리고 몇 억만 년을 두고 아침 해에 덮여 있는 이 강산은 그 해와 같이 맑고 찬연한 것이 아닌가?

천공의 별과 구름덩이를 홀로 가슴에 비치고 몇 천만 년 산비 속에

숨어 있는 백두산 천지도 좋거니와 백두산의 백설 꽃포기를 붉이면 은옥을 띠우듯이 황해로 운반하는 압록의 물도 좋다. 금강산 일만이천봉 그 자금색 산봉우리는 태양에 빛나고 그 곡선으로 얽혀 있는 골짜기마다는 창계가 있어서 은륜을 창공 밑에 그리지 않는가? 만리 장풍과 천리 벽파가 감돌아드는 곳에 발을 잡기우고 운연 속에 깊은 명상을 하고 있는 한라산도 더욱 아름답다. 장강이 있고 대하가 있고, 녹색의 야원이 있고 기름진 전야가 있어서 천연의 약토藥土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나는 이 반도 산하에 대하여 무한한 애착을 느끼고 있다. 서서인들이 알프스 산을 자랑하고 이태리인들이 베니스를 사랑하며 러시아인들이 볼가강을 자랑하지마는 우리의 백두산, 금강산은 그네들의 자랑보다 몇 배 앞서며 우리의 압록강과 한강은 그네들의 보배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조선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

백두산 흘러 내려 삼천리 넓어지고
장강이 굽어 흘러 달과 별이 잠겼는데
곳곳마다 붉은 꽃은 무궁화 송일레라

백곡百穀이 무르익어 들마다 금빛이라
꽃 피고 새가 울어 이 강산 빛나거니
백두산 넘는 해도 즐기마다 광명일레.

이 반도야말로 비단 쪽을 늘인
듯 아름답지 않은가? 지구를 모다
밟고 세계의 산하를 모다 뒤져도
이 무궁화 반도같이 아름다운 곳
은 다시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불
평이 있고 또는 괴로움이 있다 할
지라도 이런 아름다운 강산에 사
는 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생각한
다. 또는 어디를 가든지 이 땅보다
더 좋고 더 기쁜 곳이 어디 있는가?

러시아 북부에 사는 사람들은 항
상 백설과 얼음과 폭풍에 시달리어

그들의 소원이 꽃피고 따뜻한 남러
시아 지방으로 가서 살기가 원이라
고 하며, 극북과 극남에 사는 사람
들은 항상 햇빛 빛나는 온대에 가
서 살기가 소원이라고 하며, 캐나다
와 시베리아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
들의 유일한 소원 녹음이 있고 꽃
이 피는 온대지방이라고 한다.

우리 반도는 온대 중에서도 가
장 아름다운 곳이오. 따라서 녹색
의 그림을 품고 있는 오아시스다.
누가 이 무궁화 반도에 대하여 열
모와 애착을 가지지 않을 것이냐?

좋아도 내 땅 싫어도 내 고토거든
하물며 아름다운 이 산하이랴!
천만 년 해가 떠서 꽃이 피소서

우리 피. 우리 뼈를 이 산하에 묻고서
빛나는 저 별 밑에 길이길이 잠들려니
무궁화 붉은 꽃은 곳곳마다 피어라

〈신인문학〉 1934년 10월

* 출처 : 모단 에세이 / 방민호 엮음

기존의 말을 일단 멈춤!

글 • 고현희(공감대화 개발원장)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의 구절
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도끼로 자기 자신을 찌고 만다.

입안의 도끼로, 즉 말로 상대에
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스로에
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은 육체 폭력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와 같다는 표현이 '비폭력대화' 책
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
나는 폭력 사건들이 말로서 시작
된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입 안
의 도끼를 어찌해야 할까요?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였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을 적
어보세요.

상대와의 관계 : _____
구체적인 말 : _____

말하는 법칙 '상.느.바.부.(상황-
느낌-바람-부탁)'로 대화하는 것
이 공감대화입니다. 어떤 상황에
서 내 느낌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
이 '나의 상.느.바.부.'이고, 그 때 상
대의 느낌을 짐작하여 말하는 것
이 '너의 상.느.바.부.'입니다. 그런데
공감대화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0일의 훈련이!

약 100일까지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일단 멈춤'
은 수십 년간 써왔던 말이 입에서

나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 후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상황이 뭐지? 느낌은 어떨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려면 며칠이 걸리고,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까지는 더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이렇게 말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감대화의 말하는 법칙대로 말하기까지 약 100일 동안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다면 평소의 폭력대화가 바로 나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일 동안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그 이후에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새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단어를 '상.느.바.부'에 적절히 사용하면 하면 되지요.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였거나, 상

처를 주었다고 생각되어 적으신 말을 내가 듣는다고 가정해보십시오. 가정만으로도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짜증이 나시나요? 아마도 비난의 말이거나, 비판이거나, 평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느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비난의 말, 비판의 말, 평가의 말들을 '일단 멈춤'하세요. 그리고 '상.느.바.부'로 말하세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입 안의 도끼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저서 '텅 빈 충만' 중에 '입 다물고 귀를 기울이기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건 뜻을 담은 말이건 간에 듣는 귀가 바로 곁에 있다. 그것을 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성(佛性)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곧 그 삶의 속도를 열어 보임이다. 그의 말을 통해 겹겹으로 닫힌 그의 내면세계를 환히 알 수가 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로 들어와 다시 내가 되는 것이지요. 내 말이 나를 배려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감대화이기를, 그래서 내 속뜰이 숲과 호수가 있는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존의 말을 '일단 멈춤'하십시오.

맞벌이 부부의 아내가 친정어머니로부터 금전 요구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상.느.바.부'로 말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친정어머니의 금전 요구를 받았을 때는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신이 번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요구에 힘들어졌고, 친정아버지나 친정오빠와는 전혀

의논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전화에 '엄마! 엄마는 맨날.....' 이렇게 말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일단 멈춤'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상황'이라고 천천히 말하면서 느낌을 생각하세요. '좀 답답하고 난처해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제게 전화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오빠와도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은 질문형으로 '엄마, 의논하시고 다시 전화 주실래요?'라고 하면 되겠지요?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기존의 말들을 '일단 멈춤'하면 생각이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깊어지는 생각과 함께 불성은 깊어지고, 영혼은 맑아지고, 속뜰에는 맑고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7월 결연 대상자 - 박승훈(가명)

나의 소원은 아내 보다 딱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몇 분이던 오를 수 있는 3층 계단이지만 이 부부에게 3층 계단은 15분간 구슬땀을 흘려야 오를 수 있는 힘든 고난입니다. 아내의 치료를 위해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를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올해 85세로 3년 전부터 무릎에 큰 통증을 느껴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어깨 근육이 굳어 팔을 가슴 위로는 들지 못하고 통증이 심해서 일주일에 3회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모든 집

안 살림은 박승훈 어르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85세(출생신고가 늦어져서 실제 90세)의 고령으로 군복무 시절 엄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지체 장애 6급이지만 아내의 식사, 목욕, 빨래 등 모든 부분을 손수 챙기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6대에 걸쳐 성북동에 살아온 성북동 토박이입니다. 어르신께서는 1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원으로 성실히 일했지만 IMF로 퇴직한 후 사업을 하다가 갖고 있던 재산마저 다 사용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으로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종종 연락이 닿았지만 이혼했다는 소식을 뒤로하고는 간간히 들려오던 소식

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딸들도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은 아내가 가엸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한번 드셔 본 적이 없었고, 몸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출산 후 이틀 만에 발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내분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픈 아내를 두고 자신이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돌보지 않는데 내가 없으면 우리 아내는 어떻게 사나요.”라고 말하는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이 든 노부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어르신은 차상위 계층으

로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하여 총 36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에 살고 있어서 다달이 월세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수급권자가 아니기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아내의 치료비를 쓰고 나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은 감기에 걸리면 5천원의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감기가 나아지기를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 20만원을 12개월 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는 노부부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까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의 흡연 시말서

글 • 최길시(회원)

이 땅에 들어와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기호품으로 사랑을 받아오던 담배! 옛날 주머니가 없던 바지저고리 시절에는 하다못해 허리춤에라도 달고 다녀야 할 만큼 애지중지하던 담배가, 요한 20여 년 새에 혐오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이 행복 1순위인 건강의 주적(主敵)으로 판명 났으니 옛날의 그 성세로 되돌리기는 영 틀려버린 것 같다. 아파트에서도 자기 집 베란다라는 말할 것도 없고, 구역 내에서조차 자제해달라고 하고, '식후필연'하던 식당에도, 웬만한 건물마다, 깍연실 같았던 휴게소 화장실에서도 '금연'딱지가 붙어 있다. 어느 거리, 어느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벌금

까지 물린단다. 그뿐인가. 금연캠페인이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면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애연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피우란 말인가?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흡연을 추이를 알 수 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들어가 보니, 남자 흡연율이 50%에 육박하며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자 흡연율도 올라가고 있다 한다. 길거리에는 학생인 듯한 애들이 버젓하게 담배를 들고 다니는 것을 어렵잖이 볼 수 있다. 참, 헛갈린다. 요즘 세상에 헛갈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담배는 어른의 전유물이요, 흡연은 어른의 특권

이었다. 가끔 아버지 담배심부름을 했어도 그걸 입에 물어본다는 건 감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집에 목침보다 약간 큰 껌만드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만지지 못했다. 그런데 6·25전쟁이 터졌다. 남자 아이들의 놀이는 오로지 군대놀이, 전쟁놀이 뿐이었다. 나이와 덩치 순으로 정해지는 계급에서 나는 맨 뒤 쪼그라든 이등병이었다. 어느 여름날, 대장이 우리들 7, 8명을 계급 순으로 세워 놓고, 빨간 동그라미가 기막히게 예쁜 담뱃갑(그때 군대에 미제 담배가 있었는데 그것이 럭키스트라이크라는 담배인 걸 썩 후에야 알았다)에서 담배를 한 개비 꺼내더니 불을 붙여 자기가 한 번 피우고는 차례로 빨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그냥 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들이마셔야 한단다. 군대 명령이라 누구 하나 거역하는 사람 없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빨아서는 들이마신다.

두어 번 기침으로 끝나는 사람, 심하게 객객거리는 사람, 어지러운가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내 차례가 왔다. 한 모금을 힘껏 빨았다. 그 빨간 동그라미가 매혹적이어서 더 많이 빨아들었던지도 모른다. 그리고 들이마셨는데 하늘이 노래져서 쓰러졌다가 정신이 들었다. 한참 동안 메스꺼웠고, 그로부터 담배 냄새뿐 아니라 보기조차 싫었다. 그 이후 동네와 학교의 담배 피우는 친구들로부터 몇 번 핍을 받았지만, 그쪽으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장난치며 술도 마시며 몰려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우던 한 친구에게서 장난삼아 한 모금씩 몇 번 흉내를 냈는데 그게 내 흡연의 시작이었다. 그 후 직장 생활을 하니 담뱃돈도 궁하지 않았고, 나이는 어렸지만 명색이 선생이니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어른

이 된 듯한 우쭐한 생각으로 주저나 구애 없이 피웠다. 그래도 그 시대엔 상사와 어른 앞에서는 삼키는 것이 절대적 예의였다. 무료하거나 공부하다 잠 올 때, 고민이 생기거나 속상할 때, 한 대 붙여 물면 그 순간 모든 상념은 사라지고 안갯속처럼 아득함에 황홀해지기까지 하였다. 그 맛과 기분은 피워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우리라.

담배가 가장 고마웠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논산 훈련병 시절이었다. 그때 훈련병의 고됨과 고통과 억눌림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담배였다. 특히 무거운 M1 소총을 들고, 앞드렸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그 힘든 PRI 훈련 중, 조교가, 십 분 휴식, 담배 일 발 장전하면, 그 자리에 퍼터버리고 앉아 땀과 흙이 범벅이 된 손으로 불을 붙여 손끝이 뜨거워질 때까지 빨아대던 화랑 담배의 맛, 젊은이의 가슴속에 영긴 모든 것을 녹여 토해내듯 내뿜던 담배 연

기, 그때 그 훈련병들의 표정과, 동그렇게 피어오르던 담배 연기의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그때 담배가 없었다면 그 질곡의 시간을 어찌 견뎠을까, 그 모습은 카메라에 담았더라면 멋진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사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서 담배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화랑 담배가 하루에 일곱 개비씩 어김없이 지급되었으니까.

그 후에도 나의 흡연이 어디에서도 통제나 질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은 남의 집에 가면 감히 피울 엄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집에 남자 손님이 오면 재떨이와 담배, 성냥을 먼저 내놓는 것이 예의요 대접이었다. 기념품 사은품에 재떨이가 자주 등장했고, 19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을 때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에게서 외국

담배 한 갑 받으면 그 무슨 선물보다도 반갑고 고마웠다. 정부에서 담배를 전담하는 전매청을 두었고, 연초농사 장려정책을 펴기도 했었다. 내가 흡연에 처음으로 의아했던 건, 1980년대 초 일본에서였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때 재와 콩초를 거리에 버리지 않도록 휴대용 재떨이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녀야 했던 것이었고, 제재를 받아 당황했던 건 1990년대 중반인가 남미 출장 가는 도중, 작은 흡연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구역 전체가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던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담배의 폐해 홍보가 매스컴에서 활발해지더니,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금연 캠페인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담배를 아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계속되어서인가 몇 시간도 참기가 어려

웠다. 처음엔 담배를 안 가지고 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참다가 옆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면 간단히 해결이 되어 오히려 민망스럽기만 했다. 직장 옆 길가 리어카에서 파는 개피 담배로 줄이려고 했지만 횡수를 줄여서는 금연이 안 되었다. 모형담배를 사다 물고 다녀도 보았다. 그것으로도 끝내 버티지 못했다. 하루 이틀 힘겹게 참아내는데 술자리가 생기든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어느 틈에 옆 사람 담배를 입에 물고 있기 일쑤였다. 언젠가는 길거리에 떨어진 콩초를 훔겨거리며 주워 피운 적도 있었고,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가 주워온 적도 있었다. 그러기를 몇 달이나 지났는지는 기억이 없다. 2000년 1월 1일이 왔다. 21세기 출발 기념으로 금연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이 큰 저항이나 갈등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비로소 40년의 짧지 않은 내 흡연력에 종지부

를 짚은 것이다. 그렇게 힘겹고 갈 등하던 것도 끊고 나서 보니,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내 마음, 내 정신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그때 담배 끊기를 얼마나 잘 한 일인가! 그때 결단을 못 내렸더라면, 가족들의 따카운 눈총과 핀잔을 어찌 들으며, 담배가 아니라 손 떨리게 치솟은 '금배'를 꺼내들고, 화장실과 건물 뒤 담벼락에조차 기댈 수 없어 이리저리 두리번거려야 할 테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글시렵다 못해 비참한 심정이 되어 조심스레 연기를 흘려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그때의 결단이 내 인생에 몇 가지 칭찬받을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담뱃값 안 들고, 잦던 기침 없어졌고, 어디를 가도 먼저 챙겨야 하는 담뱃갑과 라이터에서 해방되어 늘 불룩해 볼품없던 주머니가 훌쩍해져 훌가분하다. 역시 가장 다행한 것은 모든 병의 주적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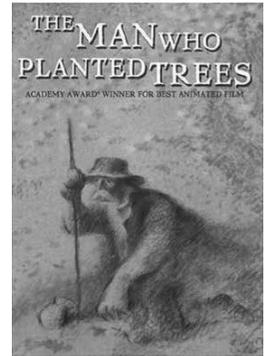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맨 먼저 묻는 질문이 '담배 피우나요?'인데, '끊었습니다'할 때, 목소리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으쓱해지나..... 참, 지금도 어찌다 스치는 담배연기가 구수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하고, 고독을 태울 길 없어 다시 피우게 되었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는 장난으로라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을 이 글로 서약하려고 한다.

최길시 • 1960년 강릉사범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단에 들어선 이후 강원도의 묵호, 동호, 사기막 국민학교와 강릉상고, 강릉고, 경기 철원고교 등에서 근무했으며 1980년 이후에는 일본의 오사카와 나고야, 홍콩의 한국국제학교 등에서 한국어 교사로 해외동포와 외국인까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2004년에 분당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2006년에 정년퇴임했다. 이틀 제자 중 스테디셀러 작가이자 문단의 중견이 된 이순원 소설가는 강릉상고의 제자이기도 하다. 본모임 회원이며 46년간 교단에 머물며 제자들에게 '인생의 등불'이 되어온 최길시 선생님의 '황혼, 그 기막힌 순간을 지나며'를 통하여 황혼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나이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고민, 세대 간에 느끼는 격세지감 등 여러 사회현상에 대한 단상을 담아 보고자 한다.

장 지오노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

글 • 윤부혁(작가)

『나무를 심은 사람』은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대표작으로 책은 1953년 <리더스다이제스트>지에 처음 발표되었다. 작품은 그 이듬해 미국의 <보그(Vogue)>지에서 <희망을 심고 행복을 가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표된 후 전 세계 13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내용은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미약한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노력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1929년 『언덕』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장 지오노의 대표작인 이 작품은 황무지에 푸른 숲을 남기고 평화로운 고독 속에 눈을 감는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의 삶을 짧은 분량이지만 잔잔



나무를 심은 사람

한 감동을 주는 서정적이고 동화적인 문체로 그리고 있다.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으며 사는, 욕심 없이 그저 나무만 심으며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영혼을 걸러주는 작업으로 나무를 심는 고독한 한 인간의 일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쁜 삶에 지친 우리에게 평화와 감동을 준다.

이 작품의 주인공 ‘엘자아르 부피에’는 40여 년간 홀로 나무를 심었고, 황무지를 숲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대지가 변해 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뿐이었다. 그는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희망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주인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가르침을 배운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람은 자신만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세상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910년, ‘나는 프랑스의 어느 산악지대를 여행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그곳은 매우 황폐해서 숲은 없었고, 그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메마른 황무지였다. 노인은 30마리의 양을 키우며 외로이 살고 있었다. 그는 여행에 지친 나에게 우

물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길어 주었는데, 그의 집은 돌을 주워 이어서 지은 초라한 집이었다. 그러나 집의 지붕은 새는 곳이 없었고, 그의 옷 역시 아주 잘 기워져 있어서 단정한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매우 성실해서 다 무너져 내린 집을 어떻게 복원시켰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의 집은 사람이 사는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루를 그의 집에서 더 묵었던 ‘나는, 그의 이상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 그는 도토리 한 자루를 준비하여 그 속에서 가장 굵고 알이 좋은 것 100개를 골라낸 후 황무지에다 아주 정성스럽게 심었다. 그는 3년 전부터 도토리 심기를 해왔으며, 지금까지 십만 그루의 도토리를 심었으나, 그중에 싹이 나온 것은 불과 2만 그루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중에서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황폐한 이곳에 만 그루나 되는 딱 같나무가 자랄 것으로 생각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노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

피에’였으며, 이 황무지를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려고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노인은 나무가 부족한 결과로 땅이 죽어가고 주민들이 포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땅은 아니지만 산 곳곳에 너도밤나무뿐 아니라 떡갈나무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한 아주 많은 나무를 심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 다음날 우리는 헤어졌다.

몇 년 후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나는 5년간 군에서 복무했다. 전쟁의 갖가지 참상을 겪고 난 ‘나는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맑은 공기를 따라 노인이 살던 옛 황무지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황무지는 숲이 되어 있었다. 떡갈나무들은 10살이 되었고, 숲은 세 구역이나 되었는데, 제일 넓은 곳은 폭이 무려 11km이었다. 1915년에 그는 자작나무들도 심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인격에 감동하여 1920년 후부터는 매년 그를 찾게 되었는데, ‘나는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사람의 노력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산림 감시원들은 숲이 저절로 자랐다고 하면서 신기해했고, 노인에게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한 뒤 떠났다. 얼마 후, 정부 대표단이 와서 산을 시찰했는데, 그들 역시 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어 했다. 그러나 누구도 노인 혼자서 숲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1935년 부피에의 ‘나무 심기’는 정부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난 1939년, 당시의 연료였던 나무 공급을 위해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지만, 다행히 그 위기를 무사히 비껴갔고, 노인은 묵묵히 나무 심는 일을 계속했다.

세월이 흘러 1945년이 되었다. ‘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과거의 그 황무지에 물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조금씩 자연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메말랐던 마을 계곡에는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돌아왔다. 예전의 그곳에는 아주 난폭한 사냥꾼 셋 외엔

아무도 살지 않았는데, 젊은 부부가 네 쌍이나 있었고, 마을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중에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까지 불어나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인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 부피에 노인은 1947년 89세의 나이로 바농에 있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다.



장 지오노
(Jean Giono 1895-1970)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오늘의 절망이 송고한 한 인간의 노력을 통해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의 병든 물질문명 때문에 생명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는 오늘날, 이 작품은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도서로써 전 세계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장 지오노 역시 이 책을 출판할 때 공동의 선(善)을 위해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우리가 자신을 자연의 일부라고 여길 때 자연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루소의 말은 현대의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에 퍼졌다. 영화는 상영시간이 30분에 불과하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 한 노인의 송고한 정신을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 영화는 1987년 캐나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1988년 아카데미 단편영화(민화부문)상을 수상했다.

주인공 '나가' 간직하는 잇을 수 없는 인격은 부피에 노인의 삶 전체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나무는 아내와 외아들을 잃은 한 노인이 인생의 무상함을 달래려는 방편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또한, 물질적 풍요를 바라고 심은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자꾸 걸러주는 작업이었다. 그랬기에 자아를 넘어선 타인을 위한 삶이 가능했다.

이 책 『나무를 심은 사람』은 녹색혁명의 목적으로 생각하거나 문

명의 이기를 타하며 읽을 요량에 서보다는, 하루의 일을 마친 저녁 시간에 창문을 열어두고 차 한 잔을 끓여 옆에 두고 앉아 마음 가까이 맞닿은 근사한 소설을 찾을 때야 어울리는 책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봄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의 빈 땅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심은 나무가 해를 더해갈 때마다 우거진 숲을 이룰 날이 올지 어떻게 알겠는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여러 회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순수모임으로 나아갈 것을 지향하며,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하고자 한다면 종교, 종파에 상관없이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실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전자 우편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전화 : 02.741-4696

장학생에게서 온 편지

맑고 향기롭게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대부고 재학 중인 이00입니다.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선뜻 봄이 찾아왔습니다. 혹여 감기라도 걸리진 않으셨는지요. 저는 요즘 중간고사를 치르고 곧 있을 모의고사를 대비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날씨인지라 괜히 아무 일이 없음에도 마음이 붕 뜨고 나가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합니다. 아직은 제 스스로 잘 절제하고 있지만, 가끔은 밖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맑고 향기롭게 선생님들과 후원자 분들 덕이라고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학생들 몇 십 명을 선뜻 후원해주시니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받은 이 선의를 후에 멋진 어른이 되어서 베풀고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사대부고 이00 올림

안녕하십니까,

작년 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받게 된 강원과학고등학교 24기 최00라고 합니다.

스승의 날, 선생님들께 감사편지를 쓰던 중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함에 응하기 위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끝내 투병중이시던 어머니께서 돌아오시기까지 하면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께서 투병 중이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들더군요.

내가 정말 이 직업으로, 내가 희망하는 꿈으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학비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지면서 저는 입학 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민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티나갈 희망을 주신 맑고 향기롭게 장학금은 제게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돈에 대한 걱정보다는 학문에 대한 뜻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맑고 향기롭게의 도움을 받은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 강원과학고등학교 24기, 최00 올림

도시의 빗방울

글 • 김주진

정규직이 비를 맞으면 비정규직이라도 되는 것일까
건물에서 나온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비를 피하려 재빠르게 뛰어간다

비가 오면 세상은 수채화처럼 쉽게 지워졌다
해가 뜬 적이 없으므로 해가 지지 않는 도시는
새벽부터 물방울의 사막이었다 구름의 하늘이었다
낙타의 혹 같은 우산 아래 깊이 파묻힌 세상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하였다

빨간 발톱을 가진 여자가 검은 지갑을 옆구리에 끼고
노란 우산을 손에 쥐고 중고 서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창백한 담배 연기는 저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미련스러워 보였다

비 오는 날 흐르는 것들은 모두 색깔이었다 스물네 가지 빛깔과
일천사백사십색의 향기가 물방울에 갇힌 듯 보였다

김주진 •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문학을 사랑하며 글을 쓰고, 이곳저곳 해외 달을 벗 삼아 걸으며 쉬멍놀멍 살아가고 있다.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

경북 안동 봉정사, 천등산 숲길, 개목사, 소산마을 숲기행 프로그램으로 6월 10일 다녀왔습니다.



6월 숲기행으로 경북 안동시 봉정사, 천등산 숲길, 개목사, 소산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빠듯한 일정 때문에 눈도장만 찍는 순례가 아닌 사찰과 자연 그리고 전통마을에서 영혼을 보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북 안동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는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을 통해 가르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 대화와 퀴즈 시간도 가졌습니다.

봉정사에 도착해서는 박희준 숲 선생님의 해설에 따라 봉정사와 영산암을 둘러보았는데, 봉정사와 영산암의 아름다움에 참가자들이 곳곳에서 "와~"하는 감탄사를 터트렸습니다. 처음으로 숲기행에 참여한 한 회원님은 그 동안 많은 사찰을 다녔지만 허투루 다녔다며 숲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니 사찰과 숲의 아름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점심공양은 봉정사 주지스님께서 직접 가꾼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었고, 갈증을 날려 줄 토마토 주스도 같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묵언을 하며 조용히 공양을 했고 공양한 그릇은 깨끗이 닦는 등 사찰 예절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공양 후에는 천등산 숲길을 따라 개목사로 향했습니다. 향긋한 숲내음이 가득한 숲속을 걸어 개목사를 참배했습니다. 이 지역에 앓을 못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절을 세운 후 눈을 떴다고 해서 개목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개목사를 뒤로하고 마지막 탐방지인 소산마을로 향했습니다. 소산마을 입구의 삼구정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명상을 하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이라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소산마을의 안동 김씨 종택, 청원루 등 다양한 고택을 관람하고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7월 숲기행은 7월 8일 전북 고창 선운사, 도솔암 숲길을 탐방할 예정이고 8월은 무더위로 잠시 휴회하고 9월 9일 전남 함평 모악산 불가사와 파평 윤씨 집성촌으로 탐방할 예정입니다. 참가신청은 사무국 전화(02-741-4696)로 접수 가능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따비에와 함께 버마어 동화책 '어린 왕자' 배포



본 모임은 버마 어린이와 함께 꾸는 꿈 - 따비에(버마 대표 마웅저, 한국 대표 정보임)와 함께 장기간의 출판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해 책이 부족한 미얀마(버마)에 법정스님의 '슬기로운 동화나라'에 이어 '어린 왕자'를 출간, 번역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비에 : 버마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며 버마 어린이·청소년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과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힘쓰는 비영리민간단체) 이번에 출간한 책은 어린 왕자(원작 : 생텍쥐페리)로 버마어로 번역하고 현지에서 인쇄하여, 버마 현지 450개 어린이 교육 기관(국립 도서관, 마을 도서관, 에이즈 센터, 한센병 센터, 학교 등)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번 버마어 번역 출판 지원은 (사)맑고 향기롭게 가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운동으로 펼쳐온 녹색나눔장터의 수익금으로 진행한 사업이라 의미가 있고, 또한 법정 스님께서 생전에 즐겨 읽으셨던 책이기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 활동 봉사자 모집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 활동

진인요양원 자원 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 활동은 어르신을 위한 점심 무료급식 활동으로 배식, 설거지 등을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6월 들어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봉사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첫째 주 반찬 나눔 메뉴는 건새우 마늘종볶음과 견과열치부

음이었습니니다. 마늘종은 살짝 데친 후 물기를 빼둔 후에 건새우와 간장양념을 넣고 센 불에서 볶습니다. 견과열치부에는 대추채, 호박씨, 해바라기씨, 호두, 검은깨, 고추씨 등 다양한 견과류를 넣어 볶았습니다. 어른신께서 맛이 좋았다는 평가를 전화말벗 봉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둘째 주는 김치 담그는 날이었습니니다. 배추는 반으로 쪼갠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른 배추는 천일염을 푼 물에 행군 후 소금을 솔솔~ 뿌려 재워 줍니다. 김치 양념에는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간 마늘, 간 생강, 굵은소금, 쪽파, 간 양파 모두 국산만 사용합니다. 맑고 향기롭게가 하는 김치이기 때문에 재료도 맑고 향기로우려야 한다는 봉사자들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김치 하는 날에는 간식으로는 KTX나눔이회에서 달인파배기를 후원해주시고, 본 모임에서는 맛있는 김치찌개를 준비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가지를 나누고 3월~11월 둘째 주 목요일에는 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농협상품권, 명절 생필품 나눔, 연말 김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입니다.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메뉴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밑반찬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꼭 여름철이 아니어도 영양 좋고 맛 좋은 우리 집만의 메뉴가 있으면 살짝 얘기해 주세요.

(담당 : 박준오 간사/02.741-4696)



*** 전화 말벗 자원 활동**

전화 말벗 자원 활동은 Maekko Hangirokke 반찬 나눔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뜻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 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밑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자원 활동**



Maekko Hangirokke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Maekko Hangirokke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Maekko Hangirokke 가게에 입고되지 않는 소품들은 비정기 녹색나눔장터와 바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

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증받은 천과 레자가 죽으로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패션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와 체크카드,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의 수납이 가능하고 무더워지는 여름에 외출을 하실 때에도, 가볍게 들고 다니시는 등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 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 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 할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Maekko Hangirokke>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Maekko Hangirokke>

- Maekko Hangirokke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6,7,20,21,27,28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3일)/Maekko Hangirokke 반찬 나눔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3,10,17,24,31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일요일(9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5일)/오후 1시 30분/다라니다원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5, 22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이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4, 11, 18, 25일)/세계일화실
- 숲기행 : 전라북도 남창마을(진주 강씨 집성촌, 선운사, 왕버들 숲/8일)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 | |
|--------------------------|--------------------------|
| ❖ 일반사업후원계좌 |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 국민은행 817-01-0253-129 | 신한은행 100-013-787953 |
|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 ❖ 장학금 후원계좌 |
| 농협 029-01-199412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 ❖ 결식이웃후원계좌
- 국민은행 817-01-0255-458

-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 3층을 새롭게 단장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층은 회원 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홀로 어르신 말벗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9시~2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일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일 첫째 화요일 11시
- 법정스님 책읽기 모임 : 매일 둘째, 넷째 금요일 / 법정스님 법문집 읽기, 법문영상보기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물품 및 정서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설거지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찻마음(소식지)발송 : 매일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벗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일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일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일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일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일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일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사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 3주 토요일
- **술기행 자연보호활동** : 매월 4주 월요일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 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 무국
- **노래모임** : 간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시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5만원/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6회차 기도가 6월 24일(토)에 입재되었으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 7월 1일(토) 오후 6시~8시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는 항상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지장전 천일기도 1000일 회향

- 일시 : 7월 6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지장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7월 8일(토) 오후 8시~7월 9일(일) 새벽 3시 40분
- 장소 : 극락전

2018년도 수능 100일 기도 안내

대입 수능 입시생과 그 가족을 위한 수능백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백일기도 기간 중 극락전에서 법사스님을 모시고 매일 오후 2시~4시 봉행되며, 입시 설명회, 수능기도 성지순례, 수능기도 합동천도제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발원합니다.

- 입재 : 2017년 8월 9일(수) 오후 2시
- 회향 : 2017년 11월 16일(목)
- 장소 : 극락전
- 동참금 : 10만원

지장재일

- 일시 : 7월 11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7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7월 2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백중초재

- 일시 : 7월 25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7월 1일(토)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 천일기도 1000일 회향	7월 6일(목)	오전 9시 20분	지장전
보름기도	7월 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8일(토)	저녁 8시	극락전
지장재일	7월 11일(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17일(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7월 23일(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초재	7월 25일(화)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거사름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관음재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소강당

나를 찾아 떠나는 맑고 향기로운 여행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2017년 여름 선 수련회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선 수련회와
여름휴가를 맞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향기로운 차와 참 나를 만날 수 있는
성인을 위한 여름 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길상사 여름 선 수련회**에서
아무 잡념 없이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차수	일정	대상	비용
1차	7월26일(수)~7월27일(목) / 1박2일	초등1~3학년	5만원
2차	7월27일(목)~7월29일(토) / 2박3일	초등4~6학년	7만원
3차	7월31일(월)~8월2일(수) / 2박3일	중·고등학생	8만원
4차	8월4일(금)~8월6일(일) / 2박3일	성인	10만원

- **접수** : 7월 1일부터 ~ 정원(입금자 우선) 마감까지
길상사 홈페이지(수행터 → 템플스테이 → 여름 선 수련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 / 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의

제 1회 ‘마음·세상·자연’ 사진 공모전

- 공모기간: 2017. 5. 10(수) ~ 8. 10(목) -



공모주제 길상사내의 맑고 향기로운 수행, 나눔, 자연, 사계절 사진 공모전

공모자격 제한없음

공모기간 2017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입상작 발표 8월 30일(예정)

접수방법

-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clean94@hanmail.net)
- 1인 3작품 이내

출품규격

- 디지털 사진 /JPG 이미지파일, 최소 1,000만 화소&5MB 이상
- 필름 사진은 스캔 후 응모 가능
- 출품 사진의 촬영 년도는 무관합니다.

유의사항

- 시상작은 공모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 및 간행물 발간, 홍보 자료 제공 등 복제, 전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작품으로 인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문제에 대한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시상내용

종류	인원	상금액
대상	1	상장 및 상품권 150만원
최우수상	2	상장 및 상품권 50만원
우수상	3	상장 및 상품권 30만원
장려상	6	상장 및 상품권 20만원
입선	30	상품권 3만원

주최 맑고 향기롭게 주관 길상사

사진 공모전과 관련된 세부 내용과 참가신청서는 (사)맑고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clean94.or.kr / Tel. 02.741-4696